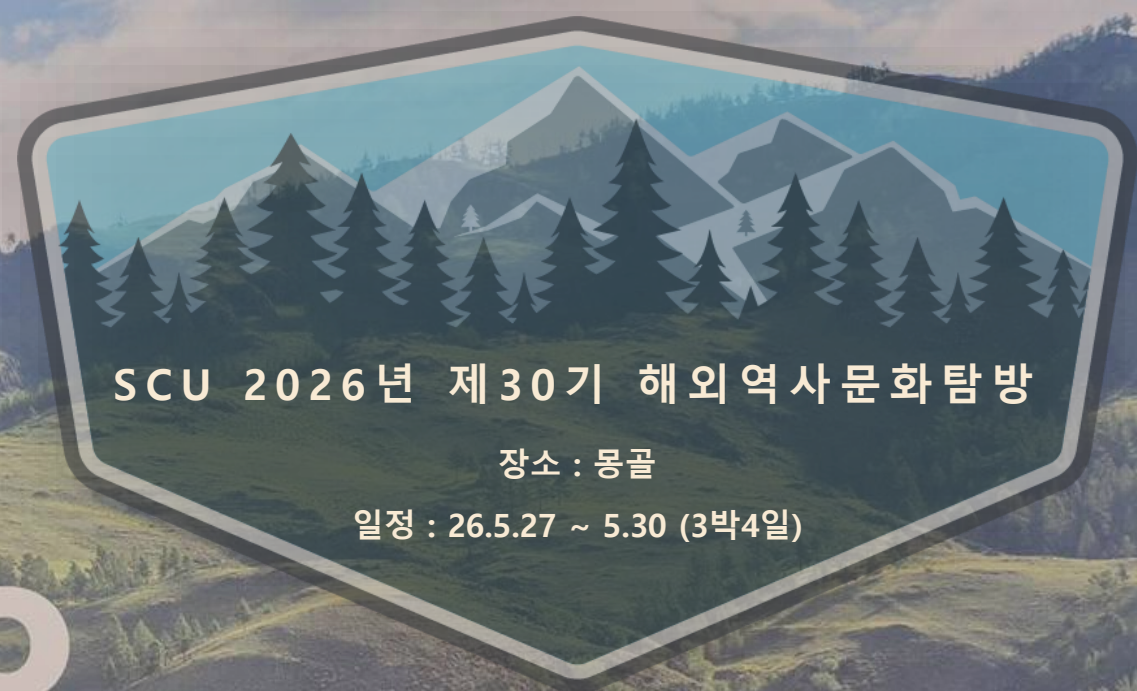




SCU 2026년 제30기 해외역사문화탐방

장소 : 몽골

일정 : 26.5.27 ~ 5.30 (3박4일)

WELCOME TO MONGOLIA

우리의 여정

0.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

1. 첫째 날: 만남, 그리고 출발
2. 둘째 날: 교육 교류 & 문화 탐방
 - . 국립 과학기술대학교 & 교류
 - . 자이승 전망대,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
 - . 국영 백화점, 몽골 전통 공연 관람
3. 셋째 날: 드넓은 자연 속으로
 - . 몽골 국립박물관, 칭기즈칸 광장
 - . 전신마사지 체험
 - . 태를지 이동 및 말타기 체험
 - . 마무리 교류의 시간
4. 넷째 날: 마지막 날, 그리고 일상으로...
 - . 거북바위, 전통 유목민 문화 체험
 - . 칭기즈칸 기마상

5. 여정의 마무리

0.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

졸업하기 전 해외역사 문화 탐방을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2026년 몽골로의 탐방은 그런 마음을 한층 더 설레게 했다.
어렵게 선발되어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1. 첫째 날, 만남, 그리고 출발

전쟁의 여파로 첫째 날 일정이 변경되어 몽골 국적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에 모였다.

발대식에서 잠간의 만남을 가졌기에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서먹한 얼굴들, 그래도 다 같이 떠남에 있어서 들뜬 마음은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저마다 설레는 마음과 표정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여정은 출발 전 반가움과 함께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었다.

첫째 날은 도착과 이동, 그리고 호텔에서의 간단한 서로의 소개에 대한 교류를 마치니, 여행의 시간은 늘 2배속인 것처럼 어느새 저물어 갔다.

동행하는 학우들의 여러 얘기들을 들으니, 배움은 사람을 참 긍정적이고, 그 즐거움을 아는 이들을 더욱 빠져들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움의 열정이 넘치는 에너지 가득한 학우님들과의 동행이 기대되는 하루였다.



2. 둘째 날, 교육 교류 & 문화 탐방

호텔에서 조식 후 울란바토르 시내에 위치한 명문 국립대학인 과학기술대학교를 방문했다. 기술, 공학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몽골 최대 규모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로 약 22,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한다. 심리학과 교수님의 반가운 환대와 뜻하지 않은 총장님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교류했던 몽골 학생들의 순박함이 너무 좋았다. 한국을 좋아하는 청년들, 다음에 한국에 방문한다면 한국에서도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다음으로 자이승 전승 기념탑이라고도 하는 자이승 전망대를 방문했다.

거대한 원형 벽화는 1921년 독립 선언부터 2차 세계대전의 승리, 그리고 소련의 도움으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역사의 순간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한 바퀴 둘러보다 보면 긴 시간의 흐름이 짧은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그드 칸의 주치의이기도 했다는 이태준 열사는 사실 인지하지 못했던 분이었다. 몽골의 슈바이처, 몽골의 신의라고 불리며, 현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한국의 독립운동가, 아직 내가 모르는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고, 그 발자취를 이렇게라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했다.

몽골의 전통문화 공연은 또 다른 느낌을 주었다.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에 이런 음률의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고, 초원을 바라보며 동화될 수 있는 아름다움 선율을 느낄 수 있었다. 공연 내내 마치 초원에 있는 것 같은 잔잔함과 광활함, 그리고 자유로움과 유목민의 기상까지 느낄 수 있었던 벅찬 시간이었다.



3. 셋째 날, 드넓은 자연 속으로

셋째 날 아침은 좀 더 빠르게 움직여 칭기즈칸 광장과 국립 박물관을 방문했다
때마침 몽골의 어린이날이 다가오는 때라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다자녀에 대한 독특한 문화가 진행됨을 볼 수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신과 같은 위엄으로 중앙에 자리 잡은 칭기즈칸의 위엄을 광장 어디서라도 느낄 수 있었고, 몽골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은 많은 시간을 간직한 소중한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심을 벗어나 태를지 국립 공원으로 향했다. 다소 답답하기도 했던 도심을 벗어나 드디어 바랐던 드넓은 초원을 향하는 설레는 마음이 최고조였던 것 같다. 말타기 체험을 위해 도착한 장소부터 가슴이 뚫리는 청량감과 끝없이 펼쳐진 초원, 그 곳을 뛰는 말 등을 보면서 차분한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전통 게르의 포근함과 수태차와 전통 과자를 맛보면서 유목민의 지혜를 잠시 둘러보고, 몽골 전통 요리인 허르헉도 맛보았는데, 생각보다 질겨 고생하기도 했지만, 탐방의 마지막 저녁식사로는 최고였던 것 같다.

밤이 다가오면서 초원의 쌀쌀함이 느껴지고, 황홀한 자연의 품 속에서 동행한 학우님들의 소감도 듣고, 캠프파이어를 통한 담소도 나누면서 그야말로 자연에 폭 빠져든 것 같았다. 차가운 공기는 머리를 식혀주었고, 넓은 초원은 답답했던 마음을 녹여주었으며, 기대했던 대로 삶의 여유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튿날에 들었던 전통문화 공연의 선율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저 초원의 끝에서 흘러 흘러 들려오는 듯 자연의 녹아드는 그 선율을 느끼면서 이 탐방도 마무리가 되어 갔다.



4. 마지막 날, 그리고 일상으로...

아쉬운 마지막 날이 밝았다. 별을 보겠다고 새벽 늦게까지 하늘만 쳐다보다가 겨우 북두칠성 사진 하나 건지고, 너무 밝았던 달을 원망하면서 새벽 일찍 초원을 걸었다. 새벽 일찍부터 풀을 뜯어 먹는 부지런한 말들을 보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 한결 몸이 정화되는 듯했다. 유목민들은 이런 자연 속에서 매일 아침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본다. 자연에 대한 감사,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또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

자연의 놀라운 조각 솜씨인 거북바위를 둘러보고,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 40m 높이의 칭기즈칸 기마상을 끝으로 몽골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 채찍을 잡는 것을 행운과 성공을 뜻하는 믿음으로 세워진 이곳이 몽골 제국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향하는 북동쪽은 그의 고향이라고 한다. 때마침 칭기즈칸의 어머니 동상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역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 무덤조차 찾을 수 없다는 그의 영혼은 고향을 찾아갔을까? 그렇게 어두운 과거를 이겨내고 위대한 여정을 살았던 칭기즈칸의 시선을 따라가 본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도 일상을 향했다. 저마다 이 탐방에서 얻은 의미를 가지고 일상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5. 여정의 마무리

서울 사이버 대학교 해외 역사 문화 탐방 30기, 이 여정에 내 이름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과의 학우님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의미였던 것 같다. 그와 더불어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대 자연 속에서의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여행의 끝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있기에 다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 여행은 내 삶의 기억의 한 페이지로 남겠지만,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기억이 될 것이다. 누군가의 기억의 한 페이지에 잠시나마 남게 되었다는 것도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기회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은 학우님들이나, 또는 생각하고 있는 학우님들이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 것을 전해주고 싶다.

“함께 하세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배움이 될 것이고, 소중한 인연이 될 것이고, 소중한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라고.



Thanks to everyone involved for putting this wonderful itinerary together.